

배달 오토바이 무법질주...손놓은 지자체

난폭운전·소음 민원 빗발...광주 3년간 인명피해 202명 시·구청·경찰 등 인력·장비 부족 등 핑계 대며 단속 뒷짐

김지수(여·27·광주시광산구)씨는 지난 20일 친구와 함께 소풍을 하기 위해 광주 시 충장로를 찾았다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려 했다. 봄비는 인파 사이를 빙글을 내며 헤집고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오토바이는 이미 저 멀리 떠난 뒤였다. 김씨는 이후에도 충장로 소풍 도중 오토바이 때문에 여러 차례 놀랐다고 한다.

김씨는 "충장로에서 이날 3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은 물론 경적과 머플러에서 나는 엄청난 굉음 때문에 4년 정도 놀란 것 같다"면서 "충장로 나들이에 나선 수많은 시민이 오토바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구청이나 경찰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도심에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 민원코너에도 충장로 일대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과 소음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민원요청에도 광주시와 자치구들은 배달업체의 현황조사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감독에는 뒷전이다.

특히 동구청의 경우 지난해 오토바이 등에 의한 소음과 난폭운전 민원 이어지자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동으로 4개월(2018년 9-12월) 동안 집중단속 기간동안 충장로 등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단속은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고,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과 공동으로 몇 차례 오토바이 단속에 나선 게 전부였다. 타 자치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토바이 단속에 손 놓고 있는 사이 광주도심에선 크고 작은 오토바이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2016년 439건, 2017년 465건, 2018년 473건, 올 2월

까지 67건 등 총 1444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오토바이 사고로 22명이 목숨을 잃고, 199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20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까지 더하면 사고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교통전문가의 말이다.

동구 관계자는 "담당자 1명이 오토바이 등록과 폐기 등 관련 업무를 모두 맡아야 하는 탓에 단속업무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서 "특히 구청에는 소음측정기 등 단속장비도 없다. 단속을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장비를 빌려오는 등 협조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광주지역 모 배달업체 소속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참여 징역형 시민,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선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1980년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60)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계엄법 위반·소요)와 도청사 내에서 소총과 실탄을 지급받아 휴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행위는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재심선고 당일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을 찾아 선고 장면을 지켜봤다.

김씨의 변호사는 "김씨가 복역 당시 심한 고문을 받아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데다 종종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떠는 등 고문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검찰은 광주지검 주도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 사유가 인정됨에도 개인이 정보 부족 등으로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공무원에 선전물 제작 지시' 광주시의원 무죄

법원 "개인적 친분에 도와준 것" 공무원에게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회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A씨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B(7급)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공무원으로,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고 개인적 친분으로 수상 및 의정활동 내용 등을 정리해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일

부 정책 이름을 메모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전략을 짜거나 선거공약을 발굴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5월까지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B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를 위한 자료와 모바일 연하장, 선거 공보물, 의정 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향소심도 승소

일부 주민 제기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기각

공익성 강화...조성사업 탄력 담양군이 '담양 속 작은 유럽'을 테마로 추진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토지를 수용할 일부 주민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박모씨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은 A업체가 작성한 실시계획 및 인가처분의 하자를 지적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 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며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A업체 등이 토지의 소유·동의 요건을 모두 갖췄으며, 과거 대법

원 판결에서 지적됐던 공익성의 흠결 사항도 보완해 실시계획의 공익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담양군은 2012년부터 담양읍 학동리 일대 13만5260㎡의 부지에 메타프로방스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해당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 중 일부인 박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박씨 등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박씨 등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의 제지정 등 대법원이 지적한 행정적 하자를 보완하고, 2017년 9월 28일 프로방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고시하는 절차를 밟았다.

윤장현 전 시장 채용 청탁 혐의 인정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에 이어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붙게 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범 김모(여·50)씨, 전 광주시 산하기관 간부 이모(56)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시장은 법정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권한을 집행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이씨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시장 등의 선고 공판은 공직선거법 선고와 같은 날인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한편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 지난해 1월 초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요구를 받고, 김씨의 두 자녀가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과 기간제 교사에 채용 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씨 등도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김씨 자녀의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채용한 사립학교 이사와 교감 등 2명도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애들이 애완견 괴롭힌다'며 말다툼 끝 개 주인-부모 몸싸움

○광주의 한 공원에서 애완견 주변에 막 대기를 휘두른 아이들의 행동을 놓고 부모와 개 주인이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해 나란히 경찰서 행.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공원에서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A(34)씨 자매는 자신들의 애완견 주변에서 막대를 휘두르는 아이 2명(7세, 4세)을 나무랐는데, 이를 본 아이들의

부모인 B(39)씨 부부가 "애들이 막대로 풀숲을 뒤적였을 뿐 개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서로 밀치는 등 폭력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매들이 아이들이 자신의 애완견을 해코지하려는 것으로 보고 혼계한 듯 하다"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의 부모와 자매간에서 서로 고성아 오갔고 서로 화를 참지 못해 다툰 것 같다.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

신창동, 근린상가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일시를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스캐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시행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9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은 무엇인가요?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수업과 자신만의 콘텐츠, 영상 제작 기법 등의 수업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나만의 영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우선)	미래사회의 준비된 나, 마음발전, 감정탐색, 1인 미디어 개론, 현역 크리에이터와의 만남, 영상기획, 촬영, 편집, 현장 견학 등	48시간	20명

- 모집기간 2019. 04. 08(월) ~ 2019. 04. 23(화)
- 교육기간 2019. 04. 24(수) ~ 2019. 08. 07(수)
- 교육시간 매주 수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
- 교육특징 교육비 지원,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메일 접수(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접수처 우) 62396 광주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의 062) 950-3583~5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시 SWANGJU CITY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